

내달부터 中企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21.5만개 기업, 연간 194억 이상 감면 효과

고용부·금감원 수수료체계 개편
적립금 많을수록 수수료율 낮춰
디폴트옵션 IRP 계좌 손익 연계
수익률 부진하면 수수료 낮아져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은 다음달부터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에 따라 퇴직연금 수수료가 줄어든다. 각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갖출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강도와 관계없이 적립금이 많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현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개편 내용 골자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총 3가지다. 먼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부담이 컸다. 이를 고려해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다음 달 1일부

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약 21만 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일 것이라는 것이다.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한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대면 IRP 계좌 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

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는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를 5% 할인하고, 적립·운용 단계보다 업무량이 줄어드는 연금수령 단계에 선 수수료를 50% 할인하는 등의 방식이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 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가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장애인가용공단

경계선지능 청년
진로설계 돕는다

경계선지능 청년의 진로 설계와 취업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8개 기관이 힘을 모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7일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소사이 어티 온소(ONSO) 스캐어에서 경계선지능 청년, 부모님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갖고,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을 비롯해,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폴리텍,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향후 경계선지능 청년 중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일 역량 강화 훈련과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에 참여한다.

고용개발원은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해 '진로성숙도검사', '구직육구진단검사', '직업흥미 및 적성검사', '장애인가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을 활용해 진로설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업 훈련과 일경험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계선지능 청년들에게는 정보기술(IT)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사업체에서의 일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직장 정착을 위해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자연자본 공시, 기업의 생존·성장 핵심 열쇠”

환경부 1차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
임상준 차관 “기업 역량강화 지원”

국제사회의 '자연자본 공시' 의무화 논의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새로 짚는 방침을 세웠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 등을 평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함께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제1차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정부는 자연자본 공시 도입 등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산업계와 공유했다. 또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자연자본 공시를 대비해 온 신한금융지주와 EY한영회계법인의 경우, 공시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을 비롯해 직접 체험했던 애로사항 등



정부 관계자 등이 27일 서울 용산의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자연자본공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

을 참석 기업들에 소개했다.

국제기구 등은 해의 진행사항 등을 소개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자연친화적 경영활동 이행방안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생물다양성 경영을 위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원 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2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제도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작년 9월 유엔(UN) 산

하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에서 공시 관련 지침서를 공표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이달 6일 산업계, 회계·법무법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이 협의체는 △국제동향 및 정보 공유 △지침서(가이드라인) 및 시범 보고

서 작성 △실무자 교육 및 자문 등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로는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시대를 맞고 있다"며 "기후 공시에 이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자연자본 공시도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 열쇠라는 인식 아래,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납품단가 낮춰 계란 값 잡는다

할당관세로 닭고기값도 안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계란 가격을 연중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단가 할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닭고기 역시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수입·국내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계란 소비량과 생산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계란 소비량 증가에 대응해 계란 공급량을 확대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으로 최근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 가격을 연중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납품단가

할인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 이달 7일부터 정부지원금과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 중소형마트에 납품하는 계란 특란 30구의 도매가격을 1000원 인하해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자체 추가 할인행사까지 더해져 3월 중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6168원으로 상승 6534원에 비해 5.6% 내렸다는 설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계란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4.9% 늘어났고, 올해 1월에는 대

형마트의 할인행사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2.9% 증가했다.

닭고기의 경우,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종계 폐사,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종계 살처분 등으로 공급 감소가 우려된 바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8월 이후 종란 529만개를 수입해 공급하고, 종계 사육기간 연장 등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닭고기 공급량이 6400여만 마리로, 전년동월 대비 1.9% 증가했다. 또 할당관세를 적용해 이달 말까지 닭고기 3만 톤을 수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 기술
농어업인 지원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KRC 지하수지질 기술나눔센터'를 운영해 농어업인과 지자체 대상 기술지원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KRC 지하수지질 기술나눔센터'는 지하수·지질 분야별 전문 기술지원을 비롯해 법·제도 검토, 기술교육 등 다양한 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하수 시설물 점검 ▲저수지 누수·안전점검 ▲지질·암질 조사 그라우팅 설계·시공·공감 등 공법 적정성 검토 ▲지하수영양조사 등 검토·심의 ▲지하수관측망 설치·운영지원 ▲지하수·토양 오염 시 긴급방재 등이 있다.

전국 규모의 지하수·지질 분야의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사는 2007년 '지하수 기술지원단'을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3만8000여건의 기술지원 활동을 해왔다. 작년부터는 지하수·지질 분야 전문인력 167명으로 구성된 'KRC 지하수지질 기술나눔센터'를 조직해 본사·농어촌연구원·9개 지역본부 단위별 '기술나눔반'을 편성해 신속한 기술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